

2024년 2월 18일(주일) 제1670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사순절 묵상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29-31)

기도가 먼저라!

제4대 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회 후

1가정1선교사 후원

김철수·김서윤(1/2) 공민호·정윤희(1/2)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백도환·석춘희(1/2) 박수옥(1/2) 김진숙(1/2)

Vision2030 후원자

백도환·석춘희(2) 박수옥(1) 김철수·김서윤(1)
남영주(2) 공민호·정윤희(1)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김예준 김재용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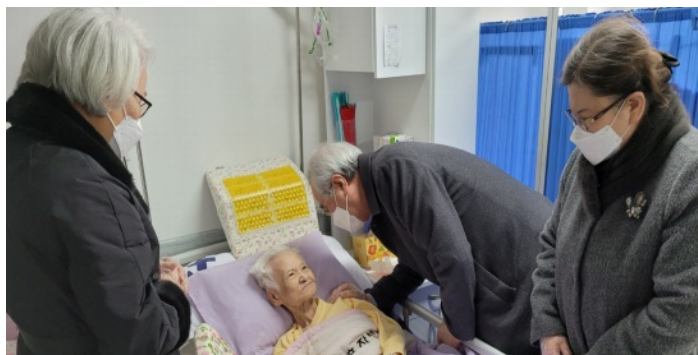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2024 겨울성경학교·수련회 은혜롭게 진행 중

사랑부:오늘 / 초등부:2월 23일(금) / 영·유아·유치·유년부:2월 24일(토)

부서	주제	주제 말씀	일정	장소
영·유아부	나는 믿습니다 - 사도신경	롬 10:9-10	2월 24일(토)-25일(주일)	서울교회
유치부	뜻을 세운 아이들	롬 12:2	2월 24일(토)-25일(주일)	서울교회
유년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로마서 12:1-2	2월 24일(토)-25일(주일)	서울교회
초등부	나는 믿음의 사람	히 11:1	2월 23일(금)-24일(토)	서울교회
고등부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는 고등부	히 11:1-2	3월 1일(금)-2일(토)	서울교회
사랑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복	마 5:1-12 6:33-34	2월 17일(토)-18일(주일)	서울교회



고령 성도 및 장기 결석 환자 성도 심방

2024년을 시작하며 손달익 위임목사님께서 고령의 성도들과 장기 결석 중인 환자들을 심방 중입니다. 심방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교구 담당교역자나 박미라 전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6 이원희 권사님(송도 효자요양원): 주경자 권사님께서 계속적으로 방문하고 계십니다.

▶ 7-3 양숙란 권사님 댁 심방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 10:5-15)



손달익 위임목사

‘장마철에 마실 물이 없다’는 속담처럼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함께 사역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주님 계산 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든 몸과 지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을 보고 이 연약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다 잘 돌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면 좋겠는데 일꾼들이 절대 부족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 주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택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훈련을 하시고 전도자들로서의 실무훈련도 시키셨는데 본문이 전도를 위한 실습훈련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훈련 받는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뱀의 지혜가 필요한가 하면 비둘기의 순결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파송되는 공동체입니다. 부름을 받고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훈련받은 후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입니다.

1.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며 전도대상자들을 특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의 대상을 내 민족으로만 특정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는 약 AD80-90년 사이로 이때 마태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파괴된 후 일단의 성도들을 이끌고 북쪽의 수리아 지방으로 가서 목회를 했고, 그 시기에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유독 구약의 인용이 많고 율법의 중요성도 매우 강조하여 ‘성경은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자체에 나타난 구원의 보편성 교훈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구원의 보편성을 전제하며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복음을 소개하지만 결코 유대인만의 구원을 가르치거나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사마리아를 방문하셔서 전도하셨고(요 4), 수로보니게 여인의 신앙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시는 본문의 해석은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 말씀을 ‘복음전도의 순서를 말씀하실 뿐 전면적인 이방인 전도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석합니다. 다만 제자들의 첫 전도인 만큼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전도를 먼저 실천하도록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행 1:8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며 우선순위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등으로 순서를 정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하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주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 ‘잃어버린 양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 먼저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대한 우선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2. 천국 복음을 전하라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갈 것을 명령하신 주님은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마 3:1-2, 마 4:17, 막 1:14-15는 계속적으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고 메시야이신 예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8절)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아무리 신앙생활에 대하여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복음에만 구원이 있고 그 복음만이 세상의 희망이며 그런 의

오늘 우리 사회가
아무리 신앙생활에 대하여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복음에만 구원이 있고
그 복음만이 세상의 희망이며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에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함께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 권능을 사용하여 천국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와 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영적 은사입니다. 둘째는 각종 직분들입니다. 셋째는 여러 종류의 재

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종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3. 염려하지 말라

파송되어 가던 제자들에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영접하고 유숙할 곳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9-11절) 우리는 개인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에 부정적이 되고 마음이 무겁고 인생이 지치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 14:1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고 하셨습니다. 넉넉한 믿음은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도 ‘걱정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19-20절)고 하셨습니다. 전도하다가 잡혀가도 할 말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보냄 받은 제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찾고 계시며 애타게 기다리심을 전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과 능력들을 모두 활용하십시오. 걱정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찾아가십시오.

뜻을 세운 아이들!



**한대석 안수집사
(유치부 부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샬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랑과 에너지가 넘치는 유치부에서 따스한 사랑과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가 가득한 겨울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변하고 있는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르게 뜻을 세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성경학교로 보내주세요!!

2024 서울교회 유치부에서는 "뜻을 세우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한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뜻을 세운 아이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주제: 뜻을 세운 아이들!
- 일시: 2월 24일(토) 9:50-14:50
2월 25일(주일) 10:50-15:30
- 장소: 서울교회 유치부실(702호)
- 준비물: 성경학교를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과 기쁨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윤동현 성도
(고등부 3학년)**

샬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고등부 회장으로 봉사하였고 올해 고3 수험생이 된 고등부 윤동현 학생입니다.

현재 서울교회가 위치해 있는 대치동을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고등학생들이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공부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1학년부터, 고등학교의 적응 중에 있는 2학년,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성인이 될 3학년까지, 저희 고등부 친구들 또한 적잖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청소년의 마지막 단계를 졸업하고 성인이라는 새로운 관문에 입장을 하는 고3이라는 수험생이 되었기 때문에 곧 다가올 새 학년이자 마지막 학년으로서의 압박감과 미래의 진학에 대해 수많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저를 지키시고, 함께하시며, 도우실 것이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3월 1일(금)-2일(토), 이틀간 진행될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는 고등부"라는 주제의 고등부 수련회가 서울교회에서 열립니다.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뜨거운 찬양, 그리고 기도로 철저히 무장한다면 올 한 해에 있을 온갖 고민과 스트레스를 거뜬히 이겨넘은 물론 하나님께서 학생들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며, 두려움을 떨쳐내고 설레는 맘으로 더욱 열심히 학업에 정진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께서는 이번 수련회에 꼭 보내주시어 자녀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함께 발견하고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새 학년 새 학기에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상 성도
(고등부 회장)**

샬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교회 고등부 학생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준상입니다. 고등부 수련회에 관한 소식을 안내드리며,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고등부 수련회는 저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진로와 학업, 그리고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과 불안을 안고 있는 시기에,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믿음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선후배 그리고 동기들 간에 서로 고민을 나누고 중보기도 해주며 믿음의 끈끈한 관계를 정립

해 나가는 가운데 새로운 학년과 학기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신앙의 활력을 얻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세요!

이번 수련회는 3월 1일(금)-2일(토)까지 서울교회에서 열립니다. 저희는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수련회에 보내주시어 함께 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관심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서울교회 고등부 겨울수련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며, 더 큰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귀택의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협력과 관심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자녀들의 미래에 희망과 기쁨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에 귀택의 자녀들을 동참토록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을 아버지의 품으로!

서울교회 성도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2024 청년부 필리핀비전트립팀(팀장:유충기 장로)이 지난 2월 8일(목)부터 13일(화)까지 필리핀 불라칸 지역에서 도시빈민 어린이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비전트립의 사역들을 2주에 걸쳐 보고 드립니다.

2024년 2월 9일(금)

분유 나눔 사역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지역으로 영양 부족한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각 가정의 아이에게 맞는 분유를 각각 4조씩 3가정을 방문하여 기도와 축복송을 불러드리고 전달하였습니다.

어린이 전도사역



400여 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노래와 게임, 준비한 노래와 공연을 진행하고 상품 증정 및 간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4년 2월 10일(토)

필리핀 청소년 youth와 함께 한 수련회



박종민 선교사님과 김선화 사모님이 어린이 시절부터 장학금을 주어 교육시키고 신앙 안에서 양육한 조이풀교회의 청소년·청년들인 YOUTH들과 같은 셔츠를 나눠 입고 함께 식사를 하며 게임과 찬양 집회를 가진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장로교회의 분열



김길창



김재준 목사



한경직 목사



박형룡 목사

현재 한국장로교회는 수많은 교파로 분열되어 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단을 포함하여 약 374개의 기독교 교파가 있고 그 중 '대한예수교장로회'를 사용하는 교단은 287개에 이른다. 물론 이 중에 대다수는 군소 교단이고 일부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가 포함되어 유동적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200개가 넘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 장로교의 분열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교파도 상황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간혹 외국인 신학자가 왜 한국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눠져 있는가를 물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예수교성결교회, 기독교성결교회, 기독교감리회, 예수교감리회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 꽤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해방 이전까지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의 교단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 1950년대에 세 번의 큰 분열을 경험하면서 한국 장로교회의 핵 분열이 시작되었다. 1952년의 고신분열, 1957년의 기장분열, 1959년의 통합-합동분열이 이 모든 분열의 출발점이었다. 이 분열의 씨앗은 선교 초기의 선교지분할협정에서 찾을 수 있다. 각 지역별로 각 선교부들이 나누어 선교를 맡는 것은 당시로서는 선교부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의 결과물이었지만 각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신학적 신앙적 분위기가 고착되었던 것이다. 장로회 중에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호주장로회가 경남 지역을 선교하였고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캐나다장로회가 함경도 지역을 선교하였기 때문에 예상 고신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기장이 함경도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각각의 분열은 서로 다른 명분으로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고신 분열은 일제 말의 신사참배 여부와 관련이 있었다. 호주장로회의 선교지역이었던 경남 지역은 보수적인 신앙인이 많았으므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투옥된 인사들이 많았다. 이들은 해방 후 신사참배한 이들의 자속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친일인사들은 개인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간 사람보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오명

을 무릅쓴 자신들의 노고가 더 크다고 항변했다. 적극적 친일인사인 김길창牧사는 경남노회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무례한 태도를 보이며 과거에 자신이 주도했던 친일행적을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 행동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고려신학과 분열, 이른바 고신 분열이 발생했다.

기장 분열은 신학사조가 문제였다. 장로교회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정통주의 신학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일제의 강압에 의해 평양 신학교가 폐교되고 서울에 조선신학교가 개교하였는데 이때 조선신학교를 운영했던 이들은 바르트의 신정통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인사가 김재준과 한경직이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신학분위기에서는 성서해석에 다양한 인문과학적 방법론을 채택한 신정통주의도 자유주의 신학으로 오해되고 있었기 때문에 교단 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결국 박형룡 박사를 중심으로 한 교단의 보수적인 지도층은 조선신학교 출신 인사들의 목회자 안수를 금지하였고 이로 인해 김재준을 위시한 조선신학교 인사들이 새로운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설립하고 분열하였다.

마지막 통합-합동 분열은 용공시비가 큰 문제였다. 당시 장로회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에 가입되어 있었다. WCC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국가의 교회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사회주의 국가인 동유럽의 교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장로회 내에는 용공의 혐의가 있는 WCC를 탈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럴 경우 세계 기독교계에서 고립될 것을 염려하며 회원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수의 대표격인 박형룡 박사가 대구에서 신학교 총장을 수행하던 도중 학교와 상의 없이 학교자금 3천만 원을 한 로비스트에게 학교의 수도권 이전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제공했다가 사기를 당한 일이 발각되었다. 당연히 교계의 큰 문제가 되었고 박형룡 박사의 실각이 예상되었다. 그때 보수권 인사들은 WCC의 용공론을 맹렬하게 주장하면서 박형룡 박사의 퇴진은 보수신학의 퇴진을 의미한다며 박형룡 박사

가 신학교 총장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이 비화되어 한경직을 중심으로 한 WCC 잔류파(통합)와 박형룡을 중심으로 한 WCC 탈퇴파(합동)는 각각의 총회를 열면서 분열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WCC가 6.25전쟁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하고 북한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국제기구였던 사실은 간과되었다.

각각의 분열에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그 명분은 과연 진실한 것이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통합 측은 교회의 분열을 감수할 정도로 WCC의 회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WCC 탈퇴를 결의하였지만 양측은 다시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 만약 정말 WCC의 회원권이 분열의 실질적인 원인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를 분열시켜서라도 자기 세력이 지배해야 한다는 욕망이 더 큰 근본적인 문제였다.

이후 고신과 기장, 통합이 더 이상 이렇다 할 분열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합동은 상황이 많이 달랐다. 세계교회와의 연대가 끊어진 합동 측은 더 이상 미국의 선교자금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치적 극우, 종교적 근본주의 성향을 가진 국제기독교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ICC)와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다시 ICC의 영향력을 둘러싼 내홍에 휩싸여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였다. 결국 교단의 분열사는 신앙도 신학도 이념도 근본 원인이 아니었다. 오직 인간의 욕망만이 교회를 분열시킨 근본 원인이었다. 그리고 이 분열은 한국 사회에서 한국 장로교회 위상을 추락시켰다. 교회는 일치할 때 가장 당당하고 가장 능력이 있다는 고대 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출간



'이스라엘 한 눈에 알아보기' 출간

9교구 박동우 안수집사·백승경 권사·세 자녀 (박재영·박재현·박경섭)

박동우 안수집사님 가족이 공동 저자로 가족 여행기 '이스라엘 한 눈에 알아보기'를 출간했습니다.

교보문고를 통해 출간된 이 여행기는 지난 2019년 7월 박동우 안수집사님의 회갑 기념으로 온 가족이 함께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

서 주님이 밟으셨던 땅, 숨 쉬시던 공기, 바라보시던 그 하늘을 함께 경험하고, 그 분의 손길과 감동을 느끼며 가슴 벅찼던 순간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 출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박동우 안수집사님 가정은 이 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선교비로 헌신하실 것이라고 전하셨습니다.

식사 제공



- 6교구 주영도 안수집사·오가연 권사 가정 (오가연 권사 모친상 은혜 중에 마치고)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일 자	요일	1년 1독
2월19일	월	민 5-6
2월20일	화	민 7
2월21일	수	민 8-10
2월22일	목	민 11-13
2월23일	금	민 14-15
2월24일	토	민 16-19
2월25일	주일	민 20-22

이름:

매체인 성경통독			
출2	눅5	욘19	고전6
출3	눅6	욘20	고전7
출4	눅7	욘21	고전8
출5	눅8	욘22	고전9
출6	눅9	욘23	고전10
출7	눅10	욘24	고전11
출8	눅11	욘25,26	고전12

성경일독 진도표와 구약과 신약, 시편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하여 1년에 구약 1독, 신약과 시편 2독을 하는 매체인방식 성경읽기표를 함께 게재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순절 첫째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며 참된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2.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팀이 뿌린 선교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파송 선교지와 농어촌 후원 교회, 비전2030 군선교지에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 하소서
3. 복음 위에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전쟁과 분열, 죽음과 고통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과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양정호
-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